

Why me?
Why not!

Profile

원희윤 (元希允, Won Hee Yun)

1999.05.28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학력사항

계원예술대학교 디지털미디어디자인과 (2019.03 ~ 2021.02)

예일여자고등학교 (2015.03 ~ 2018.02)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중학교 (2012.03 ~ 2015.02)

주요 활동

CDAK 디자인 공모전 디지털미디어 분야 특선 (2020)

졸업전시 준비위원회 하드웨어팀 (2020)

문구 팬시류 제작사업 (2016 ~)

컴퓨터 활용 능력

Adobe Photoshop, Illustrator, XD

After Effect, Premiere Pro, Unity, 3ds Max

보유 기술

HTML, CSS, JavaScript, jQuery, C#

Contact

010-9246-5910

Instagram: @abillyaemicdef

E-mail: hyu528@gmail.com

저의 취미는 디자인입니다.

여러 작업물을 참고하여 제가 생각해낸 콘텐츠를 영화 포스터와 같이 디자인하여 그것을 SNS를 통해 알리게 되었고 세계의 여러 나라, 미국, 중국, 필리핀, 일본 등에서 저의 작업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이 계기를 통해 저의 경험을 토대로 저만의 아이덴티티를 담은 타이포와 색감과 레이아웃 등으로 여러 포스터를 디자인하고 이를 상품화하여 제작하는 디자인 활동을 지금까지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계없는 배움

디자인 활동은 저에게 큰 경력을 남겨주는 동시에 계원예술대학교 디지털미디어디자인과의 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배움에 있어서 부족함 없이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컸기 때문에 디자인을 이해함과 동시에 제 작업물의 폭넓은 구현을 위해 프로그래밍의 기본을 학습했습니다. 또한 대학교에서는 제가 독학으로 배우면서 잘 이해하지 못했던 툴들의 기본부터 심화까지, 다양한 종류의 디자인에 대한 폭넓고 심도 깊은 배움을 받았고 이로써 디자인의 한계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응용력

학창시절부터 저는 많은 학우들 중에서도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세우곤 했습니다. 평소에 여러 자료들을 수집하여 머리 속에, 또는 노트 속에 담아두었던 습관이 대학교에서도 작업물을 만들어 낼 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네이밍이 필요한 곳에서 빛을 발하였고 여러 단어를 결합한 창의적인 문구들을 내세워 큰 호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토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저의 장점인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응용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에 바탕이 되는 자료수집과 분석력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고 이것은 제 디자인에서 탄탄한 밑바탕과 밑거름이 되어주었습니다.

어디서나 다재다능한 디자이너

저는 다재다능한 인재가 되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지식을 습득하고 또 배움으로써, 다재다능을 하나의 재능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이끌어내는 과정 속에서 디자인 활동을 꾸준히 병행하다보니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작업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 작업물을 검토 및 수정할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완벽한 결과물로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시간 활용과 재능이 어느 곳에서나 다재다능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을 소재로, 또 저만의 만족으로 디자인을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수의 만족으로, 여러 업체와 협력하고 시각적 이미지만으로도 감동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창의적인 그래픽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